

말려서 버리고 일회용품 자제...확 줄어든 쓰레기 '뿌듯'

광주 산수2동 주민 100가구 '쓰레기 줄이기 100일' 도전 중간 점검

쓰레기 문제 인식하고 감량 일상화...하루 배출량 12.6%나 줄어
첫 달 일반쓰레기 115g→84g...재활용품은 112g→109g으로
실천 전략 세우고 버릴 때 마다 무게 재...11월 하순 성과보고회

코로나 19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 줄이기 100일' 행동을 실천하고 있다. 쓰레기 문제를 비롯, 기후·환경 문제를 대응하는 데 시민들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들의 자발적 움직임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광주시민환경연구소, 광주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광주시 동구와 서광주시민환경연구소가 추진중인 '쓰레기 줄이기 100일간의 생활실험'에 참여한 시민들의 하루 쓰레기 배출량이 12.6%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쓰레기 줄이기 100일간의 생활실험은 동구 산수 2동에 거주하는 100가구 주민들이 100일 동안 쓰레기를 줄이는 활동을 실천하면서 매일 쏟아지는 쓰레기 배출량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줄여보자는 게 기획 의도였다.

지난 8월 11일 100가구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발대식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100일 간에 걸쳐 진행된다. 첫 달에는 기존 그대로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면서 쓰레기 배출량을 파악하고 9월부터 쓰레기 감량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수립해 수행하고 있다.

참여한 주민들은 직접 쓰레기를 배출할 때 마다 발생량을 저울로 무게를 잰 뒤 그때그때 적어놓으며 배출량을 파악했다. 쓰레기 종류도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는 일반쓰레기와 분리 배출이 가능한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로 나눠 측정했다.

8-9월 배출량을 중간 집계한 결과, 1인당 하루 발생량이 일반쓰레기의 경우 27%, 재활용품 2.7%, 음식물쓰레기 8.1%가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 8월에는 97가구 288명의 배출량이 측정됐고 9월에는 100가구 294명의 배출량을 집계했다.

무게부터 차이가 났다. 첫 달 일반쓰레기는 1인당 하루 115g을 배출하던 데서 84g으로 줄었다. 재활용품은 112g에서 109g으로, 음식물쓰레기도 123g에서 113g으로 감소했다. 전체량으로는 350g에서 306g으로 배출량이 줄어 들었다.

일반쓰레기 비율은 32.9%에서 27.5%로 줄어든 반면, 재활용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32%에서 35.7%로 높아졌다.

주민들이 스스로 계획했던 쓰레기 배출 방안 등이 꼼꼼하게 실천된 결과라는 게 동구와 시민단체 측 설명이다. 종량제 봉투로 버리는 일반쓰레기가 줄면서 재활용품 비중이 커진 것으로 긍정적인 변화라는 게 환경단체의 설명이다.

주민들은 장바구니 사용하기, 포장제(세탁소비닐, 코팅소파백 등) 놓고오기, 배달음식점 주문 시 일회용품 거절하기, 대나무 칫솔과 천연치약쓰기, 남은 음식 음식점에서 포장해오기, 손수건 챙기기, 다회용기 들고가 음식 주문하기 등의 실천 전략을 세워놓기도 했다.

한 주민은 테이크아웃 커피 주문 시 텀블러사용, 명절선물 포장지 가져오지 않기, 과일은 껍질 그대로 먹기 등을 써놓고 실천했고 다른 주민은 택배로 발생한 재활용품 씻고 말려 분류하기, 야채껍질, 도라지 껍질 말려서 배출하기, 집안행사로 배출된 음식물쓰레기 말려 배출 등의 세부 실천 계획을 기록하면서 배출량을 조절했다고 적었다.

많이 배출할수록 저울에 올려 무게를 잰 것도 많았고 부분별로 나눠야 할 것도 많았으니 '귀찮아서

쓰레기 만들지 말아야겠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껍질을 벗기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과일만 골라먹으려 한다거나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상품은 아예 사지 않으려하고 배달음식 대신 집에서 소량만 만들어 먹는 전략을 쓰면 어떻냐는 말도 들린다.

모든 전략이 제대로 먹혀든 것은 아니다. 당장, 배달음식 주문 시 일회용품 거절하기 방안의 경우 워낙 일회용품 제공처가 많아 음식 선택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힘들었다는 게 참가자들 후문이다. 장바구니 사용하기 계획도 막상 장보러 갈 때 잊어버리고는 경우가 많아 실천하기 쉽지 않았다는 말도 들린다.

한 주민은 "쪽파를 까 껍질을 뿌리는 주말농장에 퇴비로 쓰고 종이컵 대신 무공해 헨디컵을 사용하지만 추석 선물 과대포장을 줄일 수 없었다"면서 "기업들이 나서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주민은 "아파트로 햇빛이 많이 나오지 않아 껍질을 말리기 쉽지 않고 오래 걸리면 곰팡이, 벌레가 생긴다"고 했다. 일부 주민은 "아이들이 먹고 남기는 것은 조절이 안되니 '나 혼자 쓰레기 줄이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남은 음식 줄여라다 홍보되는 것 아니냐는 하소연도 들린다.

참가자들 간 공통점은 배출한 재활용품을 일일이 확인하다보니 쓰레기 배출의 심각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되고 분리 배출을 위한 '실천'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긴다는 것이다.

동구 입장에서 감량 결과, 실험 과정에서의 성과 등에 따라 이웃,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참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엿보인다.

쓰레기 감량 실험을 통해 무분별한 소비를 줄이는 경제 활동이 필요하다는 메시지 등도 전한다.

참가 주민들은 11월 중순까지 쓰레기 감량 실천 활동을 이어가며 실험을 주관하는 환경단체는 11월 하순 성과보고회를 열 계획이다.

최지현 광주환경연합 정책실장은 "쓰레기 문제에 대한 인식과 제대로 된 감량 방안의 생활화,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쓰레기 줄이기 100일 도전'에 참가한 주민들이 재활용 플라스틱 용기의 무게를 측정(왼쪽부터)하고, 단감 껍질을 말려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며, 장바구니 사용 등 생활 속에서 쓰레기 감량을 직접 실천하면서 찍은 사진.



'쓰레기 줄이기 100일 도전'에 참가한 주민들이 지난달 29일 광주시 동구 재활용 선별장을 찾아 재활용 쓰레기에 대한 분리방법과 재활용 쓰레기 선별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광주시민환경연구소 제공>

양향자 의원 첫 재판... '명절 선물' 부인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향자(54·광주 서구) 국회의원에게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의원은 지난 21일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노재호)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 기부행위를 공모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양 의원과 전 지역사무소 보좌관 A(52)씨는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9일까지 선거구민,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지역민 등 43명에게 190만원 상당의 과일 상자를 명절 선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주민·기관·단체·시설이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양 의원은 이날 법정에서 "A씨가 명절 선물을 하겠다고 하자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라고 지시했다"면서 "당시 A씨가 결제를 요청해 3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은 있지만 선거구민 등이 포함된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다음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A씨는 지역사무소 동료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으며 오는 29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양 의원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정종제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3년 구형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당 개입 혐의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정종제(58)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광주시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특례사업의 공정·투명성과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개별 이익이 지역사회로 환원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지적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2일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정 전 부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A(59) 전 광주시 감사위원장과 B(57)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에겐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전 시청 공원녹지와 사무관 C(57)씨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광주시의회 등에 유출하거나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부시장과 A 전 감사위원장은 우선협상대상자 순위 변경 과정에서 부당하게 업무 지시를 하고 제안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B 전 국장은 제안서 평가 결과 보고서 사진을 유출하는 등 정 전 부시장 등과 함께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 사무관 C씨는 제안서 평가 보고서 사본을 광주시의장 보좌관에게 전달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직권을 남용, 감사 결과를 뒤집거나 제안 심사 위원회에 특정 안전을 상정하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 도시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토록 해 개별 이익의 지역사회로의 환원 기회를 상실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호반건설로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하기 위해 표적감사를 실시하고 호반건설의 감점 사항을 제외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정 전 부시장 등은 적극 행정을 한 것으로 특정 기업의 유희를 위한 것은 아니고 개인적인 이익이나 동기도 없다며 무죄 취지의 입장을 유지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장기간 미집행 도시공원으로 묶여있다가 일몰제가 적용되는 시설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때 일부는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게 하고 나머지 면적에 아파트 등 비공공 시설을 개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2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상가매매 (상무지구)	장성 토지 (매매 분양)
<p>1) 40평(전용) 2억5천(용1억) 보1천 월100</p> <p>2) 60평(전용) 4억5천(용3억) 보2천 월200</p> <p>3) 140평(분양) 시세 9억 매가 7억(용 4억) 월수익 280만(보4천)</p> <p>(사무실 리모델링한, 빠, 유희, 모든업종가능 즉시 입주 시비없음)</p> <p>010-6670-9800</p>	<p>광주에서 20분(6M도로접)</p> <p>장성댐 (호) 2분,</p> <p>장성 IC. 5분</p> <p>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대출가능)</p> <p>[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p> <p>010-6670-9800</p>

발목펌프

특허받은 표준형

발목펌프는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의 각종 성인병을 완전 해결시켜줍니다. 직경 10cm, 길이 30cm, 높이 70cm 편백나무 반원에 운동하는데 층간소음에 지장이 없는 운동효과가 확실한 특허 표준형입니다.

★특허등록 제30-0630153 발목운동기구
★특허등록 제30-0636197 발목운동기구

표준형 발목펌프+타이머 **가격 40,000원**
표준형 발목펌프 **가격 25,000원**
편백경첩 스폰지 부착 **가격 13,000원**

제일건강 010-7510-2000
광주 남구 서문대로 687 수협 2층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 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하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 수 금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